



탈북 남북어부 재회 지난 1975년 남북돼 31년만에 귀환한 최육 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수협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자 송환 특별법 제정 촉구회견에 참석해 남북 당시 같은 배에 타고 있다 먼저 탈북한 고영섭씨 등 동료들과 재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해 번돈 여행으로 날렸다

경상수지 빨간불...서비스수지, 상품수지 흑자의 64.2% 잠식

한은 작년 국제수지 동향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 여행 경비지출로 잡아먹는 구조가 심화하면서 경상수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해외여행 등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는 60억9천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 사상 최대 적자 행진=작년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187억6천만달러로 상품수지 흑자액 292억1천만달러의 64.2%에 달했다. 이는 상품 수출입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60% 이상을 서비스수지 적자가 잠식했다는 의미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4년 80억5천만달러에서 2005년 136억6천만달러로 확대된 뒤 지난해 19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2년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를 키운 주범은 여행수지다. 작년 한해 여행수지 적자는 129억2천만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액의 6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경비와 유학연수 비용을 합친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은 182억4천만달러로 전년 154억달러에 비해 28억4천만달러나 확대됐다.

특히 작년 한해 일반여행 비용으로만 137억달러가 해외로 새나갔고 유학·연수비용도 44억6천만



가까이 급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를 키운 주범은 여행수지다. 작년 한해 여행수지 적자는 129억2천만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액의 6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경비와 유학연수 비용을 합친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은 182억4천만달러로 전년 154억달러에 비해 28억4천만달러나 확대됐다.

특히 작년 한해 일반여행 비용으로만 137억달러가 해외로 새나갔고 유학·연수비용도 44억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도 축소=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해왔던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해마다 줄고 있다. 상품수지는 전년보다 34억7천만달러 줄어든 292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2003년 219억5천만달러를 기록한 뒤 2004년 375억7천만달러로 급증했으나 2005년 326억달러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200억달러대로 내려앉았다.

▲해외여행객 급증=지난해 해외 여행 급증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3천284만8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항공 운송 실적은 여객이 3천284만8천명으로 2005년보다 10.2% 늘었다.

여행객 급증은 정부가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다 한류 열풍과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해외 여행 비용 감소,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근거리 여행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2월 중 개헌 발의 준비”

헌법개정 추진지원단 첫 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 개정 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월 중에 마련해 개헌 발의를 위한 준비를 마칠기로 했다.

지원단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매우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개헌안 발의 이후인 3월 중에 추진기로 했다고 지원단 실무지원반장인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이 밝혔다.

지원단은 내달 8일 열리는 2차회의에는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무 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

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단은 특히 노 대통령이 30일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안 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원단은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둔다”면서 “개헌안 외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안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단지 헌법 몇 개 조항이 아니고 관련법 체계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어서 많은 실무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련부처가 협력해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박지원·김우중씨 등 3·1절 특별사면 검토

정부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번 달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대·중소기업 경제사범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중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확인됐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현재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법무부 관계자도 “시기와 대상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3·1절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사 시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3·1절을 계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이달 설 연휴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경제 5단체가 지난해 말 청와대에 사면을 청원한 김우중, 박용성씨를 비롯해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S&C 대표를 비롯한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광주·전남 기업들 上場은 남의 일?



장필수

경제부 차장

새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달새 베트남 주가가 32%나 폭등하고 중국은 9.9% 상승하는 등 전 세계 주요국가의 주가는 올랐지만 국내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5.2% 내렸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와 ‘황금돼지 해’가 겹쳐 ‘1월 효과(1월에 통상 주가가 오르는 현상)’가 나타날 것이라던 증권사들의 예측과 달리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침통해 하고 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믿는다면 주가 하락을 겁낼일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우상향식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역할은 자금조달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공개로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이자 한 푼도 내지않고 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6조4천99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기업공개에 무관심한 광주·전남 기업들을 볼때면 아쉬움이 크다. 얼마전 국내 유력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모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접촉했다.

유망업체인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사 대표를 만나려 했는데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애널리스트는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자리에 없다’는 답변 돌아왔다.

기업공개에 꺼리는 것은 비단 이 회사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상장 가능한 광주·전남지역 기업이 60개나 되지만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1천642개사 가운데 광주소재 기업은 13개, 전남 기업은 12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와 14위에 머물러 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비율은 대전(1.64%) 한곳보다도 낮은 1.52%에 불과하다.

지역기업들이 기업공개에 꺼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필요를 못 느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너들의 폐쇄적인 경영과 무관심 때문이다.

폐쇄적인 경영은 결국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낳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체질을 약하게 만든다.

기업공개에 대한 무관심 역시 기업은 개인의 사유물로만 생각하는 전근대적 기업관의 반영이다. 둘 다 21세기 경영전선에서는 내버려야 할 습성이다.

자금조달을 통한 채무자와 지역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업공개에 대한 지역기업인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다.

/bungy@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Upgrade 세기보청기' (Upgrade Century Hearing Aid). The ad features a red background with white and yellow text. At the top, it says '2007 올해의 선택' (2007 Choice of the Year) and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Leader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main headline is 'Upgrade 세기보청기' with a sub-headline '다세대에서 두세대로 개편되는 세기보청기' (Century hearing aid being reorganized from multi-generation to two-generation). Below the headline, there are images of hearing aids and a person wearing one. The ad also includes a list of features and benefits, such as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and '다세대에서 두세대로 개편되는 세기보청기'. At the bottom, there is a logo for '세기스타·세기보청기' (Century Star Century Hearing Aid).